

2018년 10월 1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둔화 우려 부각 여파로 급락

다우 -3.15%, 나스닥 -4.08%, S&P500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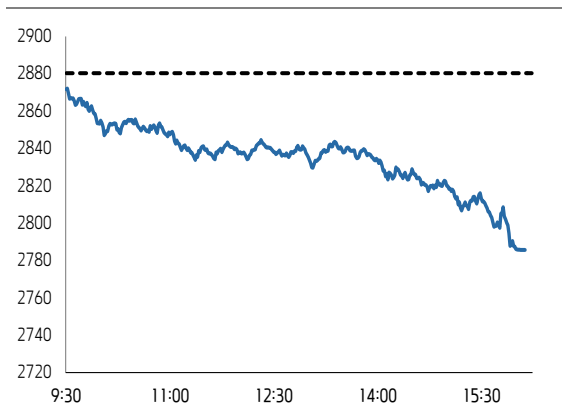
###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스파이칩 이슈 부각 여파로 기술주가 하락 주도. 특히 스파이칩 이슈는 향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비용증가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감을 부각. 여기에 바클레이즈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3 분기 실적 우려감을 표명한 점이 부담. 더불어 찰스 에반스 키가고 연은 총재가 미국의 2019년 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다우 -3.15%, 나스닥 -4.08%, S&P500 -3.29%, 러셀 2000 -2.86%)

미 증시는 3 분기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먼저 스파이칩 이슈인데 블룸버그는 지난 4 일에 이어 이번에서는 미국의 통신사 데이터센터에서 스파이칩을 지난 8 월에 발견해 제거 조치 했다고 보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안 전문가가 관련 조사했으며 조사 자료를 비롯해 증거 자료를 입수 했다고 주장. 관련 서버는 중국 광저우의 슈퍼마이크로 하청업체 공장에서 제조 되었으며 여기에서 스파이칩이 부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 일 관련 내용이 언급된 애플(-4.63%)과 아마존(-6.15%)을 비롯해 브로드컴(-5.26%), N 비디오(-7.48%), AMD(-8.22%) 등 반도체 업종이 급락. 이는 기업들의 보안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적 둔화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추정.

바클레이즈도 인터넷 기업들의 3 분기 실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 바클레이즈는 2 분기에 이미 인터넷 관련주들은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었다며 이번 3 분기에도 유럽규제, 달러 강세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플랫폼 회사와 함께 대 중국 수입제품이 많은 기술주 등이 급락.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투입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로 2019년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5% 내외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1.12	2,228.61		홍콩항셱	+0.08	26,193.07	
KOSDAQ	-2.56	747.50		영국	-1.27	7,145.74	
DOW	-3.15	25,598.74		독일	-2.21	11,712.50	
NASDAQ	-4.08	7,422.05		프랑스	-2.11	5,206.22	
S&P 500	-3.29	2,785.68		스페인	-1.05	9,162.90	
상하이종합	+0.18	2,725.84		그리스	-0.05	625.83	
일본	+0.16	23,506.04		이탈리아	-1.71	19,719.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인터넷 플랫폼 업종 급락

전일 블룸버그가 스파이칩 관련 보도를 또다시 내놓았다. 이 여파로 애플(-4.63%), 아마존(-6.15%)이 하락 했으며, 브로드컴(-5.26%), N비디아(-7.48%), AMD(-8.22%)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 했다. 다만, 전일 반영이 된 슈퍼마이크로(+2.73%)는 상승 했고, 마이크론(-1.56%), 웨스턴디지탈(-0.50%), 시게이트(-0.77%) 등은 보험권 등락을 보이는 등 견조 했다.

한편, 바클레이즈가 인터넷 관련주에 대해 실적 둔화 가능성을 언급 했다. 이 여파로 넷플릭스(-8.38%), 트위터(-8.47%), 알파벳(-4.63%), 페이스북(-4.13%) 등이 하락을 주도 했다. 셰브론(-3.33%), 코노코필립스(-5.43%), EOG리소스(-4.44%)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보잉(-4.66%), 캐터필라(-3.84%), 3M(-3.93%) 등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로 하락 했다. 백화점 업체인 시어스홀딩스(-16.83%)는 파산 소식에 장중 31%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4.53%	대형 가치주 ETF	-2.34%
에너지섹터 ETF	-4.88%	중형 가치주 ETF	-2.46%
소매업체 ETF	-2.46%	소형 가치주 ETF	-2.27%
금융섹터 ETF	-3.10%	배당주 ETF	-1.77%
기술섹터 ETF	-4.85%	변동성 ETF	+16.56%
소셜 미디어업체 ETF	-4.97%	대형 성장주 ETF	-3.95%
인터넷업체 ETF	-5.21%	중형 성장주 ETF	-3.73%
리츠업체 ETF	-1.58%	소형 성장주 ETF	-3.42%
주택건설업체 ETF	-1.82%	신흥국 고배당 ETF	-2.71%
바이오섹터 ETF	-3.32%	신흥국 저변동성 ETF	-2.08%
헬스케어 ETF	-2.36%	하이일드 ETF	-0.79%
곡물 ETF	-0.86%	물가연동채 ETF	-0.10%
반도체 ETF	-4.54%	Long/short ETF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6.04	-3.59%	-3.22%	+2.44%
소재	340.13	-2.54%	-7.00%	-8.21%
산업재	632.51	-3.47%	-5.49%	-3.46%
경기소비재	862.00	-3.74%	-6.20%	-7.38%
필수소비재	549.13	-1.27%	-0.53%	-2.59%
헬스케어	1,067.15	-2.37%	-3.31%	-0.30%
금융	451.98	-3.04%	-2.53%	-2.72%
IT	1,220.62	-4.77%	-8.42%	-5.87%
커뮤니케이션	150.28	-3.94%	-6.65%	-5.34%
유틸리티	274.03	-0.53%	+2.79%	+0.46%
부동산	196.48	-1.61%	-0.58%	-5.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2.96% MSCI 신흥 지수는 2.9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116 계약) 여파로 5.00pt 하락한 283.80pt 로 마감 했다. KOSPI 로 환산하면 2,190pt 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2.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3 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던 '스파이칩' 이슈가 부각된 지난 4 일 이후 기술주들의 보안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S&P500 의 경우 2 년내 가장 긴 5 일 연속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 증시 하락 요인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파이칩 이슈는 전일 한국 증시 하락에 이미 반영이 일부 됐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는 업황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발효에 따른 투입비용 증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증시가 반등을 모색한다면 한국 증시 또한 반등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

9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예상치(yoy +2.8%)를 하회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 했다.

9월 미국 도매재고는 전월 대비 1.0% 증가해 예상치(mom +0.8%)를 상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이 해양시추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특히 해양시추시설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많은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더불어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도 부진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이란의 산유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OPEC 국가들의 산유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EIA 는 미국의 9 월 산유량이 하루 1,110 만 배럴을 기록해 8 월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8 년에는 하루 평균 1,070 만 배럴로 예상했고, 2019년에는 1,180 만 배럴로 예측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가 부각되었으나 8 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견고한 지표를 발표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협상이 줄을 이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 다음주 EU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글로벌 증시 급락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년 평균(2.52 배) 보다 낮은 2.39 배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하기도 했다(3 년물도 2.84 배에 미치지 못한 2.56 배 기록).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보합, 철근은 0.4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3.17	-2.39	-4.24	Dollar Index	95.514	-0.16	-0.26
브렌트유	83.09	-2.25	-3.71	EUR/USD	1.1522	+0.27	+0.38
금	1,193.40	+0.16	-0.79	USD/JPY	112.36	-0.53	-1.89
은	14,326	-0.51	-2.34	GBP/USD	1,3191	+0.37	+1.94
알루미늄	2,047.00	-0.44	-7.21	USD/CHF	0.9907	-0.15	-0.17
전기동	6,239.00	-0.84	-0.45	AUD/USD	0.7074	-0.41	-0.41
아연	2,629.00	-1.83	-0.79	USD/CAD	1.3042	+0.74	+1.35
옥수수	362.75	-0.48	-0.55	USD/BRL	3,7603	+1.24	-3.65
밀	510.50	-0.87	-0.92	USD/CNH	6.932	+0.22	+0.62
대두	852.25	-1.25	-1.07	USD/KRW	1134.00	+0.11	+2.00
커피	111.90	-1.10	+4.97	USD/KRW NDF 1M	1142.75	+1.01	+1.58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89	-1.69	+0.81	스페인	1.611	+1.30	+7.70
한국	2.410	-3.20	+3.00	포르투갈	1.957	-1.30	+6.90
일본	0.156	-0.50	+1.50	그리스	4.441	-11.70	+6.30
독일	0.552	+0.30	+7.70	이탈리아	3.504	+3.20	+19.40